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2월(제6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사랑받는 온천현을 목표로!  
 우주의 온천현 오이타 오이타현



〈위 사진은 베푸 온천의 모 호텔에서 촬영된 동영상의 스크린 캡처입니다. 몸에 수건을 두르고 온천을 즐기고 있는 건... 바로 '외계인 U'. 오이타 현 내 각지를 여행하는 듯 여기저기서 그가 포착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본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온천현 오이타'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는 프로모션이 현재 오이타현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우주의 온천현 오이타(宇宙ノオンセン 県オオイタ)'. 오이타현은 지난 2020년, 소형 인공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버진 오빗 (Virgin Orbit)'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이타 공항에 수평 이착륙을 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장을 2022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에서는 홍보 영상 제작 및 SNS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사랑받는 온천현이 되기 위해 온천, 맛집, 액티비티 등 관광 시설의 서비스를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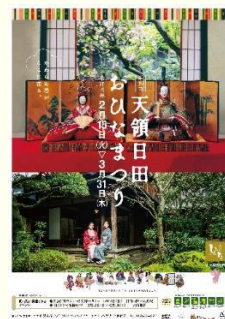
그리고...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외계인(!)이 계시다면 현 내 일부 온천 료칸(旅館, 일본 전통 숙박 시설) 이용 시 자진신고를 해 주세요. 2월 말까지 외계인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전통,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히타시 소개&히나마쓰리 안내 히타시



히타(日田)시는 오이타현 북서부 지쿠고강(筑後川) 원류에 위치한 분지 마을로 많은 하천이 흘러들어 예로부터 '물의 고향 히타'라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여름이 되면 미쿠마강(三隈川)에 놀잇배를 띄워 우카이(鵜飼い, 가마우지 은어 낚시)를 구경하는 풍물시와 약 1,30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분고(豊後) 3대 온천 중 하나인 '아마가세 온천(天ヶ瀬温泉)'과 더불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의 '히타 온천(日田温泉)'도 있습니다.

또한, 규슈 3대 미림(美林)이라 불리며 시의 기반이 되는 임업이 발달하여 히타 삼나무로 만든 히타 가구와 히타 게다(下駄, 일본식 나막신)도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더불어 민속 도자기 '온타야키(小鹿田焼き)'의 전통 제작법은 약 300년에 걸쳐 직계 가족을 통해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은어, 산천어, 장어 등 민물고기 요리와 히타 야키소바, 지역 술 등 맛있는 음식도 가득한 곳입니다.



〈제39회 덴료 히타 히나마쓰리〉

(第39回天領日田あひなまつり)

- 기간 : 2022년 2월 15일(화)

~ 3월 31일(목)

- 장소 : 히타시 마메다마치(豆田町), 구마마치(隈町)

- 문의 : 0973-22-2036

(히타시관광협회, 일본어 대응)



(좌)지구어 로고 (우)외계어 로고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2월(제6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지열 관광 랩 엔마에서 오감으로 벳푸를 즐기다

## 벳푸 죽세공&지옥 증기찜 체험 벳푸시

벳푸시 간나와(鉄輪) 온천 지구에는 지열을 활용한 온천 증기찜 체험, 온천 염색 체험, 그리고 죽세공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있다. 이곳은 '지열 관광 랩 엔마(地熱観光ラボ緑間)'. 오늘은 엔마의 죽세공 체험과 지옥 증기찜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竹細工体験 : 竹玉つくり

## 죽세공 체험 : 대나무 방울 만들기



예로부터 벳푸는 온천과 대나무가 많아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온천의 증기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생활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해왔다. 시간이 흘러 에도 시대(1603~1868)가 되어서는 벳푸 온천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탕치(湯治, 온천에서 목욕하며 병을 고치는 것)를 하기 위해 벳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하는 동안 벳푸의 대나무 바구니를 사용하여 밥을

지어 먹었다. 이후 전국 각지로 그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간 것이 죽세공 시장의 성장 배경이라고 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라탄 공예'라는 취미가 생긴 나 는 죽세공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이번에 엔마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죽세공을 해 보았다.



엔마 건물 2층에 위치한 죽세공 공방 '다케이로(たけいろう)'에서는 '대나무 방울(色竹玉)'과 '시카이나미 꽃바구니(四海波花籠)'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사전 전화 예약 필요(0977-75-9592), 일본어 대응). 엔마에 따르면 어른이 꽃바구니를 만드는 동안 아이는 방울을 만들며 함께 죽세공을 즐길 수 있도록 두 가지 체험을 마련한 것으로 죽세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내가 한 대나무 방울 만들기 체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울에 염색한 뗏개비를 덧대어 엮어 방울에 색을 입히는 것으로 만 3,4세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완성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 감정 등이 작품에 나타난다는 죽세공의 특징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로웠다. 공방에서는 전통공예사 강사 또는 스태프와 함께 소인원으로 체험을 진행하며 혼자 또는 두 명, 아이 동반으로 와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완성한 죽세공예품은 대나무 본연의 질감과 윤기를 즐길 수 있지만 재료가 나무인 만큼 관리를 잘 해주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공예품은 잘 건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벌레가 생겼을 때는 정기적으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주면 좋다고 한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2월(제6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地獄蒸し体験 지옥 증기찜 체험



### 1. 식권 자판기에서 식권 구입하기

해물 모듬, 채소 모듬, 소/돼지/닭고기 샤브샤브 등의 체험용 음식 재료를 선택합니다. 직접 찌는 요리 외에도 다양한 단품 요리가 있으며 오이타의 향토 요리(당고지루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 2. 온천 증기 찜가마에서 음식 재료 찌기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찜가마로 재료를 찌니다. 온천 증기를 이용하므로 순식간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완성 후 가마의 뚜껑을 열 때 증기가 펄펄 솟아오르니 화상에 주의하세요!



### 3. 부드럽게 찌진 음식 맛있게 먹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있는 족욕탕에 발을 담고 직접 찌낸 지옥 찜 요리를 먹으며 오감으로 벚푸를 즐겨보세요!

🔥 간나와 지구에 오시면 여기서도 가 보세요!

## ① 기후네 성 眞船城



앞서 소개한 엔마에서 간나와 온천 지구 북쪽으로 20분 정도 걸어가면 언덕 위에 있는 '기후네 성(眞船城)'에 도착한다. 헤이안 시대(764~1185) 말기의 장군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가 보루를 쌓았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1957년에 복원된 성으로 백사(흰 뱀)을 모시며 성 내부에는 조금 독특한 물건들이 전시되어있다. 높은 성 부지에서 보이는 벚푸의 풍경이 정말 멋있으니 기회가 되면 날이 좋은 날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 ② 간나와 부타망 혼포 かんなわ豚まん本舗



'간나와 온천 증기 산책(鉄輪湯けむり散歩)' 행사 때에 제공하던 부타망(고기찜빵)이 인기를 끌자 지난 2002년에 본격적으로 가게를 낸 곳이다. 지옥 증기로 갓 찌낸 따뜻한 부타망을 먹으며 간나와 온천 거리를 산책해보자(부타망 개당 200엔).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2월(제6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3화

나는 집순이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혼자 노는 건  
진짜 너무 좋아한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다행히 난 아님...

? 집에  
있는게  
왜 힘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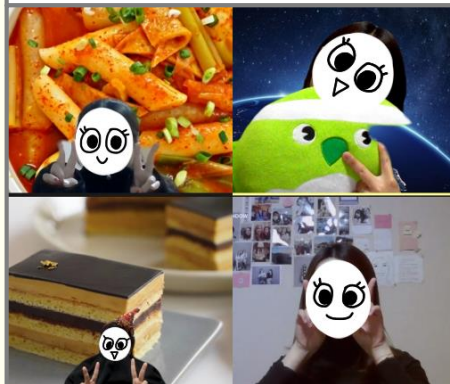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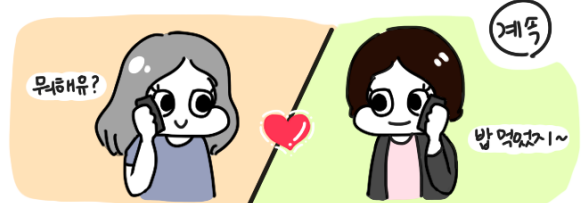
그래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인지만  
사람들과 연락은 하고 지낸다.  
(그래서 안외로운듯)



최근들어 한국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또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며  
다시금 집콕시간이 늘어나게 됐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여  
얼굴을 볼수있는  
랜선 술자리나  
랜선 저녁식사도  
주천해요!!